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기업 제품 구매 외면한다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중기 애로 조사

작년 전체 구매 중 14.5% 불과 판로 확대 위한 정책·노력 요구

지역 공공기관 거래 중소기업들이 '우선 구매 비율 법제화'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나주혁신도시 기관의 전체 중소기업 구매 실적 중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입 비율이 15%도 넘지 못하는 등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지원 노력 제고가 낮기 때문이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18개 기관의 지난 2022년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1조3,4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 실적(9조 2,213억 원) 대비 비율은 14.5%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전력공사의 도내 총 구매액은 8,532억 원으로 전체 중 63.6%(8,532억)에 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총 구매실적(6조1,665억 원)과 비교해선 13.8%수준에 머물렀다. 도내 총 구매실적의 30.9%(4,142억 원)를 차지하는 한

국농어촌공사도 총 구매실적(2조6,379억 원) 중 15.7%만 지역 중소기업 물품을 이용했다.

총 구매액 중 도내 기업 제품 구매율이 가장 적은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2.3%)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3.6%), 국립전파연구원(4.5%)순이었다.

혁신도시 기관 중 NH농협은행(73.5%)이 가장 큰 비율을 기록했고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40.3%), 농식품공무원 교육원(32.3%)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세 기관의 합계 도내 구매액은 295억 원으로 전체 실적의 2.2%에 불과하다. 그 외 8개 기업들은 5.3~24.4%의 비율을 보였다. 이에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지역 중소기업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취지에 맞게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최우선으로 우선 구매, 공공기관 납품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 중기중앙회가 지역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 공공기관 거래(희망)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 발표 결과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중

소기업 제품 구매 노력 정도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 37.5%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노력에 대한 체감도는 ▲어느 정도 노력한다(63.0%) ▲노력하지 않는다(22.6%)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판로지원'이 32.0%로 가장 높았고 ▲납품단가 적극 조정(16.9%) ▲상생 협력 자금 등 자금지원(15.3%)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보완점으로 혁신도시법(약칭)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과 같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도 우선구매 의무 비율(30% 이상) 법제화' 의견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지난해 나주혁신도시내 10개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협동조합계가 함께 '지역 중기 제품 우선구매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역상생 협의체도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지역 제품 구매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인식과 판로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2일 나주 스페이스코워 2층 타운홀에서 지역 중소기업 3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2차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경총 제공

## 광주경총, 2차 중기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2일 나주 스페이스코워 2층 타운홀에서 '2차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광주고용노동청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평등산단,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나주지역 중소기업 30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광주고용노동청은 고용노

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출산육아 지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소개했다.

경총에서는 고용안정선제 대응패키지, 뿌리산업 구입난 개선, 국민취업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을 소개했다.

/오지현 기자



봄꽃 정원에서 힐링하세요

광주신세계 분관 1층 광장 플랜트 하우스에 다채로운 봄꽃으로 조성된 작은정원이 상큼한 봄 향기를 전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는 정원은 형형색색의 꽃들로 생기 발달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꽃동산 분위기를 풍겨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가뭄대책 상황실 가동

용수시설 상태·준공 시기 점검 수계 연결·신규 용수원 개발 모색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가뭄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용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본부는 용수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도와 협력, 용수시설 관리상태 점검 및 용수개발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영농기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중점 점검해 나갔다.

전남본부가 관리하는 저수지 1,052곳의 저수율은 52.7%로 평년보다 16.5% 낮은 상황이다. 전국 평균 저수율이 71%인 것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이는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194.0mm에 불과해서다. 이에 전남본부는 지난 11월부터 하천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저류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7%인 9,480톤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광주호를 제외하고 30%대의 저수율을

보이는 4대호의 경우 타목적 용수 공급과 하천 유지용수에 대한 공급을 전량 중단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전남본부 수해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용수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본부는 생활용수가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농민의 동의를 이룬 지역에 한해 총 250만톤의 용수를 공급했으며 극한 가뭄지역의 밭작물 2,441ha에도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전남본부는 4월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저수지 물채우기와 함께 퇴수 활용을 통한 직접 급수를 시행하고 이후 집단 못자리와 논물가두기 등 대국민 물 절약 동참 운동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조영호 전남본부장은 "영농을 위한 용수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예상이 필요한 장기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함구 대책 마련을 통해 물 걱정없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유)하우젠공조시스템  
Samsung System Air Conditioner

www.shsa.kr

##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유)하우젠공조시스템은 학교, 아파트신축, 대형빌딩, 병원, 대형교회 등 시스템에어컨 대량납품 전문회사로 최첨단 제품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 맞춤설계 및 고품질 시공과 완벽한 사후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영업/모집**

- 정규직 2명
- 프리랜서 수시
- ※ 남녀 연령 무관 / 출퇴근 자율

대표이사 **신철우**

www.shb2b.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